LS 증권 주간 Global ESG News

주간 ESG 뉴스 2026.05.01~2026.05.08

구분	시장 동향
Energy	● **중국 태양광 경쟁 규제에 태양광 패널 가격 반등** (2026.05.05, FT) 중국 정부의 공급 사이드 개혁 및 은 가격 상승으로 태양광 패널 가격 반등 본격화. 태양광 산업의 가격 경쟁력은 여전하나, 무조건적인 원가 하락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수익성을 재산정해야 하는 구조적 전환점을 맞이함
	● **EU 집행위, 에너지 컨설팅 지출 10년 새 400% 급증** (2026.05.05, FT) EU 집행위원회의 에너지·기후 분야 외부 컨설팅 지출이 '14년 이후 400% 이상 급증. 다만 동시에 외부자문사 의존도 심화에 따른 잠재적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. 이는 동일 자문사가 EU 정책 수립과 산업계 로비를 병행한다는 점에서 논란
Government	● **독일 정부, 중공업 부문 탄소배출량 감축 위한 €5B 자금 지원** (2026.05.05, Bloomberg) 독일 정부가 중공업 부문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€5B를 지원할 계획. 해당 재원은 기업들이 탄소 포집·저장(CCS) 또는 수소 등 청정 공정으로 전환하는 데 활용되며, 화학·철강·시멘트·유리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함
	● **SEC, 백악관에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폐지안 제출** (2026.05.05, Bloomberg) 미 증권거래위원회(SEC)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상장기업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폐지안을 백악관에 제출. 해당 규정은 법적소송으로 인해 시행된 바 없어 사실상 폐지되었으나, 이번 기점으로 공식적인 폐지 단계에 진입
Corporations	● **캐나다 양대 대형은행, 2030년 넷제로 목표 폐기** (2026.05.01, ESG NEWS) 캐나다 양대 대형은행이 정책환경 변화와 시장 불확실성을 이유로 2030년 배출량 감축 목표를 철회. 다만 Scotiabank는 중간 목표('30년)와 장기 목표('50년)를 모두 철회한 반면, RBC는 2050년 넷제로 목표만 유지
	● **MS, 청정에너지 공약 철회 검토 중** (2026.05.06, Bloomberg) MS가 '30년까지 전력 소비량 100%를 시간대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공약을 연기/폐기하는 방안 검토. 이는 AI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급증과 재무 부담이 핵심 배경으로 작용
Funds	● **미국 뉴욕시 연기금, 블랙록·피델리티 넷제로 불일치 경고** (2026.05.01, ESG NEWS) 미국 뉴욕시 연기금은 블랙록·피델리티가 자사의 넷제로 목표와 충분히 일치하지 않는다 경고. 연기금 측은 기존에 지적된 $42B 규모의 위탁 규모를 포함하여 관련 운용 권한에 대한 재입찰 또는 해지를 검토 중. 일련의 행보는 기후대응 목표 조기 달성 성과와 궤를 같이 함. ('25년 금융 배출량을 48% 이상 감축하는 동시에 +10.3%의 수익률을 기록)
	● **덴마크 PFA, 방산 투자 확대 및 ESG 프레임워크 기반 감독 병행** (2026.05.01, IPE) 덴마크 PFA는 방산 섹터 투자 비중을 확대하되, ESG 리스크 프레임워크 기반의 감독을 강화. ESG 프레임워크 감독은 거버넌스·인권·최종 사용 리스크 등을 점검. 즉, 책임투자 원칙을 병행 적용하며 수익성-지속가능성 간 균형을 모색하는 것. 이에 방산 투자 배제와 전면 허용 사이에서 갈등하던 연기금들에 새로운 절충안으로 주목
	● **네덜란드 Detailhandel, 임팩트 투자 3~5배 확대 결정** (2026.05.05, Net Zero Investor) 네덜란드 연기금 Detailhandel은 임팩트 투자 비중을 현행 1%에서 2~5%로 확대하기로 결정. 회원 대상 3일간 숙의 교육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안. 에너지 전환·순환경제 분야에 대한 응답자의 42%가 임팩트 투자 확대를 지지. 사모부채·부동산을 중심으로 복수의 운용사 선임을 검토 중. 영국 연기금 Nest도 유사한 회원 의견 수렴 과정 도입

자료: 언론보도, LS 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투자전략팀)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